



여우와 고슴도치

글 김명조 삼부토건(주) 부사장

중국의 고시(古詩) 중 주옥편(珠玉篇)을 엮은 고문진보(古文眞寶)에 “남들은 모두들 덥다며 괴로워하지만, 나는야 길고 긴 여름날이 사랑스럽네.” [人皆苦炎熱 我愛夏日長]라는 시구가 있다.

올여름이 예년보다 유난히 더워서 힘들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이 글은 속된 말로 염장을 지르는 이야기일 테지만, 여름마다 푸른 파도와 시원한 계곡을 떠올리는 이들에게는 달콤한 휴식 같은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시인 장조(張潮)의 말처럼 ‘여름이 한가로움을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계절’이라는 뜻이다. 한가롭다는 것은 좋은 것이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가로우면 정치 좋은 곳에서 책을 읽으며 세상의 시름을 잊을 수도 있고, 좋은 벗을 만나 환담을 나눌 수도 있으며, 아이들 손을 잡고 뒷동산에 올라 때 이른 매미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 나도 모처럼 한가로운 시간의 여유를 만끽하려고 산책길에 나섰다. 그러다 우연히 숲에 사는 여우와 고슴도치를 만났는데 짐짓 그들이 하는 짓을 보고 있노라니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 두 놈은 노상 으르렁댄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민첩하고 늘씬한 여우가 항상 고슴도치를 잡아먹을 생각에 여념이 없다면, 굼뜬 고슴도치는 그런 여우를 무시하고 언제나 어정어정 걸으며 먹을 것만 찾아다니는 꼴이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여우는 고슴도치가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번개같이 뛰쳐나가 고슴도치를 덮치려고 했다. 여우를 본 고슴도치는 놀라 도망가기는 커녕 ‘애가, 또 덤비네?’ 하는 뚱한 표정을 짓더니 몸을 동그랗게 말아버린다. 여우는 흠칫 놀라 공격을 멈추고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숲 속으로 물러나 또 뻔히 당할 새로운 공격 구상에 몰두하는 것이다.

이 우화를 통해 사람들을 여우 그룹과 고슴도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목적을 위해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방법들을 구상하는 여우와 복잡한 세계를 하나의 개념이나 원리로 단순화시키는 고슴도치가 그것이다. 여우는 어지럽고 산만하며 여러 단계를 오르내리는 탓에 자신의 생각을 하나의 통일된 개념이나 비전으로 통합시키지 못한다고 한다. 반면 고슴도치는 세상이 제아무리 열기설기 복잡하게 얽혀 있어도 개의치 않고, 모든 문제를 자신의 컨셉트로 단순화시킨다고 한다.

고슴도치가 표방하는 나름의 컨셉트는 단순·명쾌함이다. 그들은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베일에 싸인 현실을 꿰뚫고 무수한 코드를 식별해냄으로써 패턴화시킨다. 다양하지만 중구난방 격인 전략이나 기술보다는 한 가지의 단순한 장점을 확실하게 밀어붙여 성공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온갖 전술과 무기를 앞세워 덤빈 미국을 단순한 공격 방식으로 막아낸 베트남처럼 말이다.

그러나 고슴도치의 방법과 여우의 방법에 대한 우열을 가리기 전에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직하게 무언가를 밀어붙일 수 있는 단순함과 인내가 더욱 필요할지도 모른다. 다양함을 전략으로 택했던 단순함을 전략으로 택했던 끈질기고 우직한 자세야말로 자고 나면 달라지는 요즘 세상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싶다.

‘가을’이라는 시 한 편으로 우리를 감동케 했던 릴케는 여름을 ‘만물이 사지를 쭉 펴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길게 내쉬는 계절’이라고 했다. 이 여유로운 계절에 온몸 곳곳에 막혀 있던 기(氣)를 뚫어 혈액을 원활히 하고 독서삼매(讀書三昧)를 부추겨 내공을 쌓아두자. 그리하면 사랑스러운 여름을 보내고 풍성하고 여유로운 가을을 만끽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



김명조 삼부토건 (주) 부사장